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1 개요

신라 진흥왕대에 활약했던 인물이다. 국사를 편찬하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지역까지 신라의 영역을 넓히는 데 공헌했다.

2 거칠부의 가계

거칠부(居柒夫)의 가계는 『삼국사기』 거칠부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거칠부는 신라 제 17대 왕인 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의 5대손으로, 조부는 각간(角干) 잉숙(仍宿), 부친은 이찬(伊漣) 물력(勿力)이다. '잉숙'이라는 이름은 『삼국사기』 거칠부전을 제외하면 사료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잉숙'과 한자가 유사한 '내숙(乃宿)'이 보여, 둘을 동일한 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부친인 물력(勿力)은 법흥왕 11년인 52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진봉평신라비의 명문(銘文)에서 그 이름을 볼 수 있다. 울진봉평신라비의 내용에 따르면 비가 세워졌던 524년에 물력은 신라 관등 중 제 7위인 일길찬(一吉漣)의 관등을 지니고 있었는데, 거칠부 열전에서는 제 2위인 이찬 관등을 소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524년 이후 관등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외에도 지증마립간 13년(512년)에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異斯夫)가 내물마립간의 4세손으로 거칠부와 숙질(叔姪)관계였다.

3 젊은 시절의 활동

『삼국사기』 거칠부전에 따르면, 거칠부는 젊은 시절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사방을 주유하였는데 이 시기에 고구려에 가서 혜량법사(惠亮法師)의 불경 강론을 들었다고 한다. 관련사료 거칠부가 고구려에 갔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젊었을 때라는 점, 그리고 진흥왕 5년(545)에 처음 신라에서의 활동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대략 법흥왕대로 추정할 수 있다. 법흥왕 시기 신라와 고구려와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지마립간 16년(494년)에는 신라의 장군 실죽(實竹)이 살수(薩水) 근방 들판에서 고구려와 싸우다 견아성(犬牙城)으로 물러났는데, 고구려군이 쫓아와 포위하여 백제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관련사료 소지마립간 18년(496년)에는 고구려가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즉 5세기 초반 이후로는 고구려와 신라는 잦은 무력 충돌을 일으키던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이다. 혜량이 거칠부가 신라에서 온 것을 알고 그를 따로 불러내어 신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 것은 이러한 양국의 관계를 고려한 충고였을 것이다. 관련사료 거칠부는 혜량의 충고를 받아들여 신라로 돌아갔다. 이 일을 계기로 이후 혜량은 신라에 와서 불교 진흥에 공헌하였다.

관련사료

4 국사(國史)의 편찬

신라로 돌아간 거칠부는 관직에 진출하여 그 지위가 신라 관등 중 5위인 대아찬(大阿漣)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시기의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국사를 편찬한 것이다. 진흥왕 6년(545)에 이사부가 왕에게 나라의 역사를 편찬할 것을 주청하자, 진흥왕은 거칠부에게 명하여 문사(文士)를 모아 『국사(國史)』를 편찬하게 하였다. 관련사료 거칠부는 국사 편찬의 공을 인정받아 그 관등이 제 5위인 대아찬에서 4위인 파진찬으로 올랐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사부와 거칠부는 모두 내물마립간의 후손이었다. 이전에는 박·석·김씨 왕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내물마립간 때부터 김씨 왕족이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